

“냉해에 태풍까지...올 과일수확량 10%도 안될 것”

태풍 '하이선' 북상 소식에 지역 농가·수해민들 전전긍긍

냉해로 영글지 않은 과실...두 번의 태풍에 30~40% 낙과 침수피해 구레·곡성 주민들 “복구 막바지인데 또...” 한숨

“냉해에 태풍까지 둘 중 하나만 와도 힘든데, 앞치는데 덮쳐 올해 배 농사는 다 망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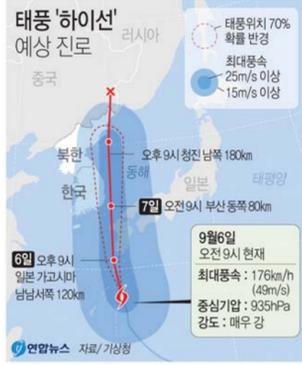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북상 소식에 지역 농가와 수해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과 농가들은 아직 수해복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태풍이 오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광주·전남에 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태풍이 근접하면서 광주·전남에는 10~30%의 강풍이 불고, 100~200mm(지리산 부근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지점별 태풍 최근접 예상 시간은 7일 오전 7시 완도(290km 동쪽), 오전 8시 고흥(240km 동쪽)·여수(210km 동쪽), 9시 광양(200km 동쪽)·광주(280km 동쪽) 등이다.

기상청은 강풍에 의한 시설물 피해와 낙



과 등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집중호우에 이어 두 차례 태풍으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특히 과수 농가들은 '바비'와 '마이삭'의 강력한 바람에 추석 출하를 앞두고 심각한 과실 낙과피해를 입은 상태여서, 다시 다

가오는 강력한 태풍에 그나마 달려있던 과실까지 다 떨어질까봐 애태우고 있다.

나주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남형근(60)씨는 “20년 동안 배농사를 짓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면서 “냉해가 오던 태풍이 오던 돌중 하나만 오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냉해에 태풍까지 겹쳐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남씨는 “1ha가량 배농사를 짓고 있는데, 냉해로 배가 영글지도 않았고 그나마 달린 배조차 2번의 태풍으로 30%~40%가량 떨어졌다”면서 “이번 태풍이 강력한 바람을 몰고와 나과가 더 생기면 수확량은 10%도 못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구레 등 전남 지역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해복구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 잇따른 태풍으로 일상으로의 복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레 오일시장의 한 상인은 “제발 복구 작업을 끝내고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잠 좀 자고 싶다”면서 “이제 낫출기만 보면 정글 징글징글하고 하늘이 한스렵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곡성 신리마을 한 주민은 “피해 복구가 거의 막바지이지만 태풍이 연달아 와서 문제다”면서 “이제 겨우 집을 정리하고 있지만 연이은 태풍 탓에 생계인 비닐하우스 복구는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태풍 북상중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비가 내린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올 가을 단풍 늦다

평년보다 2~3일...지리산 10월 13일·무등산 23일 시작

올 가을 단풍은 평년보다 늦게 물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단풍을 즐겨야 할 처지다.

6일 민간 기상정보회사인 153웨더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3~5일 늦을 것으로 보인다. 올 가을 무등산 첫 단풍시기는 지난해보다 2일 늦은 10월 23일 시작돼 11월 7일까지 절정에 이를 것

으로 관측됐다. 지리산의 첫 단풍은 10월 13일 시작돼 같은 달 24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장산은 10월 22일 시작, 11월 4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풍은 산 전체로 볼 때 정상부터 아래로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하며 80% 이상 물들었을 때를 '절정기'라고 한다.

153웨더는 올해 첫 단풍의 경우 평년보다 3~5일 늦고, 절정시기도 평년보다 3~6일 늦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풍은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잎 속 엽록소 분해 현상으로 노랗거나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며,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153웨더 측은 올해 단풍이 평년보다 늦은 이유에 대해 “8월까지 강수량이 많았고,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동강대 간호학과 5년 인준 간호교육인증평가

동강대학교가 정부로부터 우수한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동강대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5년 인준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21년 6월13일부터 2026년 6월12일까지다. 동강대 간호학과는 지난 2016년에 이어 정부가 인정하는 '간호교육 기관'이 됐다. 특히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간호교육인증을 받은 기관 졸업생들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 인증의 의미가 크다.

동강대 간호학과는 1995년 80명의 신입생이 입학한 뒤 2013년 4년제로 승격됐고, 이번 인증을 통해 명실상부 전문 간호 인력 양성 교육 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정은서 학과장은 “앞으로 국내외 보건 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2021 신입생 전원에 'AI인재 장학금'

55만원 상당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교환권

전교생을 인공지능(AI) 융합인재로 키우는 국내 유일의 AI특성화대학인 호남대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AI교육에 필수적인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AI(인공지능) 인재장학금을 지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AI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호남대의 AI인재장학금 지급은 수년간 지속돼온 등록금 동결·인하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2학기도 등록금 11% 인하에 이은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대는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 후 등록한 신입생들에게 55만원 상당의 태블릿PC, 태블릿PC를 비롯한 각종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교환권이나 현금을 AI인재 장학금으로 지급기로 했다.

또 수시모집 지원자격 등록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에어팟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또는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AI인재장학금은 성적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되는 것이어서 성적 우수 학생의 경우 혜택의 폭이 대폭 확대됐다. 다만, 2021년도 4월 1일 이전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퇴자나 군입대 등으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호남대 손홍민 입학처장은 “신입생들이 입학 후 안전한식 자동출결시스템, 온라인 화상수업과 동영상학습, 에듀테크 기반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참여, 수강신청, 통학버스 실시간 위치조회, WiFi 6(5G망) 등 새로 구축되는 AI융합캠퍼스의 최첨단 교육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AI인재장학금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대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 1651명 전원을 선발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개선

별도기구서 조사...해결 과정 학생·학부모 참여 보장

스쿨미투로 흉역을 치른 광주교육청이 스쿨미투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대폭 개선했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별도기구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한다.

광주교육청은 최근 스쿨미투 태스크포스(TF)팀 운영 결과보고회를 갖고 TF팀이 지난 6개월간(1~6월)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완성한 '스쿨미투 TF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보고서는 우선, 전담기구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조사위는 내부 25명과 외부 16명 등 총 41명으로 인력풀을 구

성, 사안별로 3~10명의 조사위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은 사안별로 반드시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교육청 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25명으로 구성되고, 사안별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을 위촉하되, 외부 위원은 ▲성폭력상담기관 대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 ▲현직 교원 ▲변호사·학생인권전문가·학부모 등 4개 그룹에서 반드시 1명씩 포함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학생 1대 1 전수 조사가 이뤄지고, 행위교사의 경우 분리 조치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학생 면담

이튿날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교과 교사의 견해를 덧붙여 심의위로 넘기게 된다.

심의위는 사안 조사 후 1주일 안에 회의를 열어 ▲성(性) 관련 사안이 맞는지, 즉 신고 대상인지 ▲학생과 해당 교사 분리조치 필요성 여부 ▲학교 안정화 지원 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감사관실로 심의 결과를 넘기게 된다. 수사기관 신고는 감사관실에서 맡는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와 심의위는 학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일 경우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수평적 논의와 토론을 진행토록 하고,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겨진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심리 지원에 나서 등 스쿨미투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